

慧超詩考

李 九 義

〈目 次〉

- | | |
|---------------|--------------|
| I. 問題提起 | II. 創作心理(動機) |
| III. 過渡期的詩體 | IV. 求道와 人情 |
| V. 新羅中·後期の 聯繫 | VI. 마무리 |

I. 問題提起

新羅時代는 크게 三期로 區分된다. 즉, 始祖부터 智證王(AD.514)까지를 初期로, 法興王(AD.514)에서 景德王(AD.765)까지를 中期로, 惠恭王(AD.765)부터 新羅末까지를 後期로 잡는다. 이 가운데 初期에 해당되는 기간의 漢詩作品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같은 時期 高句麗의 第二代 琉璃王이 「黃鳥歌」를 지었으니 後代의 譯詩로 간주되어 論及을 不許하고, 駕洛國에서는 王首露를 맞이하기 위해 부른 「迎神君歌」도 漢詩作品이 아니기에 論議對象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初期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三國이 모두 漢詩作品을 創作할 能力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

中期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唐의 文化가 流入되면서 唐詩를 成立시키고 AD.700年代 前半期에는 그 全盛期를 맞게 된다. 現傳하는 最古의 新羅의 漢詩作品은 眞德女王代의 「致唐太平頌」이다.²⁾ 그 뒤에는 偈頌類가 多數 전

1)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大邱: 螢雪出版社, 1981.12), p.304.

2) 이 期間에 中國과의 接觸이 가장 緊密했을 百濟에는 그 典籍들을 甄萱이 燒滅해서 그런지 전해지는 作品이 보이지 않는다. 高句麗에는 定法師의 「詠孤石」과 乙支文德의 「遺隋將于仲文」, 그리고 作者末詳의 「人蓼讚」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고찰될 것이다.

해지고 있다. 이 偈頌類에 對해서는 이미 論議⁴⁾된 바가 있고, 또 다음 機會에 再論되기를 희망한다.

慧超(AD. 704~787)는 新羅의 名僧으로 弱冠에 唐으로 건너가서 南印度의 密敎僧 金剛智를 師事했다. 그는 金剛智를 師事하다가 決意하고 南海로부터 印度에 건너가서 五天竺의 聖地를 遍歷했다. 그 旅行中 見聞을 수록한 慧超의 「往五天竺國傳」⁴⁾ 가운데서 다섯 수의 詩가 실려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對象이 바로 이들 다섯 수의 시이다. 이들 다섯 首의 詩는 ① 作者가 實在했다는 점, ② 當時에는 보기 드문 紀行文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③ 形式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各首 八句)는 점, ④ 修道僧의 作品이라는 선입관과 실제 작품과의 차이를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점, ⑤ 當時 詩風의 一端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 ⑥ 지금까지의 논의는 崔致遠 上限線으로 해서 國文學의 範圍를 縮小시키고 있으나, 崔致遠 보다 先代人을 研究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⁵⁾에서 論議의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3) 李鍾燦, “新羅佛經 諸疏와 偈頌의 文學性”(新羅文學의 新研究, 第七輯, 新羅文化宣揚會, 慶州市), 1986.2.

4) 이 冊은 1908年 佛蘭西東洋學者 P. Pelliot가 敦煌石窟에서 처음으로 發見한 寫本으로 題命도 著者名도 떨어져 없어진 殘簡이었다. 이 원문은 崔南善「三國遺事」附錄「慧超往五天竺國傳(殘文)」에서 紹介되고 있다. 그리고 원문과 번역은, 金奎聲 譯이「韓國의 思想大全集, I」(同和出版社), 梁翰乘 譯註「往五天竺國傳」(서울: 通文館, 檀紀, 4294.8), 李錫浩 譯「往五天竺國傳」(乙酉文庫, 46) (서울: 乙酉文化社, 1970.8)이 있으며, 韓國放送事業團에서「新往五天竺國傳」(上·下)를 1983年 9월에 간행한 것이 있는데, 이 책은 한국방송공사에서 慧超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취재한 것을 묶은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한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洪淳赫, “世界的 學界에 大驚異를 준 新羅僧 慧超에 대하여”(한글, 1928).

② 洪以變, “印度에 求法한 新羅僧의 傳記縹緲”(朝光 9의4, 1943) (朝鮮名人傳 中卷 pp.91~99所收).

③ 高柄翊, “慧超 往五天竺國傳 研究事略”(白性旭博士 頌壽紀念佛教論文集, 同 刊行委員會, 1959).

④ 張德順, “최초의 異域紀行文—慧超의 「往五天竺國傳」(韓國隨筆文學史) (서울: 새문社, 1985.3. pp.13~19) 등이 있다.

5) 이에 대한 논의는 尹榮玉 앞의 책 pp.299~313과 沈浩澤, “韓國漢詩史의 出發期에 대한 問題”(語文論集, 23, 高麗大國語國文學研究會, 1982.9)가 선구적이다. 그리고 池浚模 “新羅漢詩의 發展過程”(新羅文化祭學術 發表會 論文集, 第七輯, 新羅文化宣揚會, 慶州市, 1986.2)이 참고가 된다.

그러면 이들 다섯 수의 시를 위의 목차의 순서에 따라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創作心理(動機)

「往五天竺國傳」所載 五首의 詩는 기행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먼저 유념해야 된다. 紀行文의 要體는 精確한 路程과 縝密하고도 敏銳한 觀察, 방문지의 風俗과 情景이 종합적으로 묘사되어 독자로 하여금 그 분위기에 몰입하게 하는 데 있다. 慧超의 기행문에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다.

慧超가 여행을 하면서 詩 다섯 수를 지었다. 여행자, 즉 나그네의 신세라는 선입관이 먼저 머리를 스친다. 旅愁가 詩 속에 스며 있으리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창작심리는 달라질 수도 있다. 본장에서는 慧超가 詩를 지을 당시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다섯 수의 시를 들어 본다.

- | | |
|---|---|
| A) 不慮菩提遠, 焉將鹿苑遙
只愁懸路險, 非意業風飄
八塔難誠堅, 參著經劫燒
何其人願滿, 目覩在今朝 | B) 目夜瞻鄉路, 浮雲颯颯歸
緘書參去使, 風急不應迴
我國天岸北, 他邦地角西
日南無有雁, 誰爲向林飛 |
| C) 故里燈無主, 他方寶樹催
神靈去何處, 玉兒已成灰
憶想哀情切, 悲君願不隨
孰知鄉國路, 空見白雲歸 | D) 君恨西蕃遠, 余嗟東路長
道荒宏雪嶺, 險澗賊途倡
鳥飛驚峭巖, 人去難偏樑
平生不捫淚, 今日灑千行 |
| E) 冷雪牽氷合, 寒風擘地烈
巨海凍漫漫, 江河浞崖嶮
龍門絕瀑布, 井口盤蛇結
伴火上脰歌, 焉能渡播密 | |

먼저 A) 詩부터 지어진 動機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A) 나는 마라보리라는 절에 도착하였는데 영원한 소원을 성취한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했다. 이 기쁨을 나는 오언의 시로써 표현해 본다. (□□得

達摩訶菩提寺 稱其本願 非常歡喜 略題述其過志 五言……)

- B) 나는 지금 남인도 땅을 여행하는 중인데, 오언의 시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于詩在南天路 爲言曰 五言……)
- C) 산중에는 또한 나갈라타야(那揭羅馱耶)라는 절이 있고 한중국인 승려가 있었는데, 중인도에서 나서 삼장성교(三藏聖敎)에 경험이 많아 능통하였다. 본국에서 돌아갈려던 차에 병이 들어 이 절에서 죽었다 한다. 그러한 그의 신변 이야기를 듣고 객지에 있는 나 자신의 신세를 견주어 가슴이 아파 문득 사운(四韻)을 가지고 그의 명로(冥路)를 슬퍼하는 오언시를 지어 본다. (又山中有一寺 名那揭羅馱耶 有一漢僧 於此寺身亡 彼大德說 從中天來 明閑三藏聖敎 將欲還鄉 忽然違和 便卽化矣 于詩聞說 莫不傷心 便題四韻 以悲冥路 五言……)
- D) 도카리스탄(吐火羅)에서 동쪽으로 아래를 가면, 와칸(胡密)왕의 성에 당도하는데 이 도카리스탄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도 중국사신을 만나 사운(四韻)을 사용하여 五言詩를 짓는다. (從吐火羅國 東行七日 至胡密王住城 當來於吐火羅國 逢漢使入蕃 略題四韻取辭 五言……)
- E) 어느 겨울날 도카리스탄(吐火羅)에 있을 때, 눈을 만나 그 감회를 五言詩로써 표현한다. (冬日在吐火羅 逢雪述懷 五言……)

A)詩는 喜悅를 느끼는 가운데 지은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갈망하던 소원을 성취한 뒤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B)와 E)는 작가 자신의 心懷를 읊는 것이다. 내용은 앞으로 고찰될 것이기에 여기서는 창작동기만을 考究하기로 한다. 자연을 보며, 그 자연에서 자신을 돌이켜 관조하면서 읊은 시들이다. 마지막으로 C)와 D)는 물론 작가 자신의 心懷를 읊고 있다. 그러나 그 情感을 느끼게 되는 동기는 自然이 아니라 人間이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작자 자신의 마음이 動해서 지어진 詩이다. C)의 詩는 山寺에서 중국 승려의 이야기를 듣고, 객지에 있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지은 것이다. 중국의 승려와 자신(慧超)이 交感(Correspondence)하고 있다. 이미 이승의 사람이 아닌 중국 승려와 자신의 입장이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求道라는 견지에서 그러하다. 異域 - 물론 中國의 僧侶는 中印渡에서 태어났지만 - 에서의 求道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僧侶는 三藏(經·律·論)聖敎에 능통했다. 한다. 得道를 했다는 말이 된다. 得道를 하여 故國으로 歸還하려는 즈음에 그만 病을 얻어 죽고 말았다. 이러한 이야기

를 들으면서 慧超 自身の 위치를 생각해 보니 萬感이 교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감을 詩로써 표현한다고 했다. D)는 慧超 自身이 도카리스탄에 도착했을 때 중국의 使臣을 만나 시를 지었다고 한다. C)는 죽은 사람의 사연을 듣고 지었다. 그러나 D)는 산 사람과 직접 대면을 하고 난 뒤에 느낀 감회를 시로 읊은 것이다.

A)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수의 창작동기는 밝은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니다. 得道の 喜悅을 지나서, 旅愁에 젖은 상태에서 事物이나 事件을 접할 때는 그 느끼는 깊이가 더욱 심화된다. 人間의 五官을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認識作用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作者가 修道僧이며, 또 旅客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佛敎의 敎理가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佛經에 否定的인 用語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라는 신세도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이 숨어 있다. 外部와 和合되기 보다는 격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慧超의 시 다섯 수 가운데 네 수가 어두운 면을 읊조리고 있다고 하겠다.

Ⅲ. 過渡期的 詩體

漢詩에 있어서는 形式이 중요하다. 특히 古詩가 아닌 近體詩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漢詩를 연구하는 분들은 형식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漢詩에 있어서 형식은 너무나 기본적인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論者들이 形式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 구태여 형식 문제를 거론하게 된 때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초기의 漢詩가 과연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취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다.⁶⁾

6) 池浚模님은 그의 “新羅漢詩의 發展過程”, (新羅文學의 新研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第七輯), (新羅文化宣揚會, 慶州市), 1986.2에서 C)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먼저 앞에서 소개한 A)黏과 韻을 따져 보기로 한다.

21212 11221(蕭)

21122 12211(蕭)

22212 12121(蕭)

11122 22211(蕭)

(1;平聲, 2;仄聲)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는 平起式이며 ‘蕭’韻을 쓰고 있다. 그러나 黏은 맞지 않는다. 首聯 出句의 第二字가 平聲이면 第四字는 仄聲이라야 한다. 하지만 위의 시에서는 平聲으로 되어 있다. 對句에서도 黏이 맞지 않다. 第二字가 仄聲, 第四字가 平聲이 되어야 하나 위의 시에서는 그 반대로 되어 있다. 위의 시는 首聯의 出句 第二字가 仄聲이 되면 頸聯의 對句 第二字가 句式에 어긋나고 나머지는 모두 句式에 맞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시는 仄起式으로 보고, 首聯의 出句 第二字와 頸聯의 對句 第二字가 句式에 어긋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시에서 韻을 보면, 平聲 ‘蕭’를 쓰고 있다.

이처럼 黏은 맞지 않으나 拗體로 볼지도 하다. 그리고 韻은 同一한 것을 쓰고 있다. 또 對仗을 따져보면, 서로 對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는 律詩가 아니라 古詩로 보아야 할 것이다.

慧超의 詩에서 黏은 대충 맞지만 2,3聯이 對偶體가 아니기 때문에 近體詩가 아니다. 慧超의 詩는 古詩에 해당한다.

이렇게 近體詩와 古詩의 形式이 뒤섞여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첫째 이유는 개인적인 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慧超가 天竺國에 간 것은 그의 나이가 30歲 전후였다. 따라서 아직 학문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詩作 역시 완전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① 이 詩는 第2,3聯에 對偶體(antithesis)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外形의 여하함을 불문하고 古詩이다.

② 押韻에서 A는 灰韻, B는 微韻, C는 支韻인데, 여기서는 이들이 通韻으로 取扱되었기에 換韻으로 보지 않는다.

③ 平仄이 맞고 失黏聯의 相關構造가 맞지 않음도 없어 外形으로는 완전 正格律體이다. 이는 作者의 製作意識이 二元的으로 작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30歲 쯤 되면, 학문의 성숙도가 完全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갔다고 할 수 있다. 옛날의 유명한 詩人들은 열 살 이전에도 좋은 시를 짓곤 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意圖의으로 형식을 깨뜨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자 자신이 獨創의으로 變格을 하여 讀者의 注意를 환기시키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즉, 이미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정서를 용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社會的 要因이나 與件으로 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新羅中期에는 아직 近體詩가 유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⁷⁾ 신라에 近體詩가 유행한 것은 賓貢留學生들이 歸國하고 나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勿論 崔致遠, 朴寅範, 崔匡裕, 崔承祐의 시박에 전하는 것이 없지만, 그 이전의 留學生들도 近體詩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慧超가 黏이나 韻은 正格으로 하면서도 對偶體를 쓰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古時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社會的 制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古詩와 近體詩의 中間過程에서 빚어진 技巧의 未熟에서 緣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求道와 人情

앞 장에서는 慧超의 시가 형식상 過渡期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논했다. 본 장에서는 실제 慧超詩의 內容을 분석해서 그 내용상의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7) 波浩譯 교수는 그의 “三國時代와 新羅中代의 漢詩에 대하여”(漢文學論集, 第二輯, 檀國大學校 漢文學會, 1984.11), p.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文學史의 흐름으로 볼 때 詩에서 近體詩를 수입한 것은 羅末, 즉 新羅下代임을 감안한다면 삼국시대나 新羅中代는 新羅詩를 수입하기 이전의 시기로서 한 期에 들 것이다.” 筆者도 여기에 共感한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相對的인 것은 기쁨과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第二章 창작심리를 논할 때도 언급했지만, 慧超의 시에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된다. 먼저 앞에서 소개한 A) 시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다시 그 原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不應菩提遠	보리수가 멀다고 근심한 것 없었는데
焉將鹿苑遙	녹야원이 먼 들 어찌하리오
只愁懸路險	멀고도 험한 길이 걱정될 뿐
非意業風飄	몰아치는 惡業의 바람 두렵지 않네.
八塔難誠見	여덟 개의 탑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參著經劫燒	여러차례 큰 불에 타버렸기 때문
何其人願滿	어찌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 줄거나
目覩在今朝	오늘 아침부터 이 눈으로 똑똑히 보오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는 기뻐서 지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에 나타나는 詩語들은 尾聯을 제외하면 기쁨을 느끼기는 부족하다. 詩語상으로 볼 때는 그저 호젓이 읊조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기뻐서 날뛰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기뻐도 서정적자아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드러내지 않고 있다. 求道者의 초연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首聯부터 分析해보기로 한다.

보리수(菩提樹)가 먼 것이 아니다. 서정적자아가 보리수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는 보리수는 知識의 나무이다. 마음이 淸淨無垢할 때 菩提가 된다고 한다. 즉, 邪心이 없는 정신 세계, 得道の 경지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鹿苑, 즉 鹿野苑은 지명이라 한다.⁸⁾ 인도식 발음은 미가다바이며, 구시나(拘尸那), 라자가바(舍城外), 마하보리(摩訶菩提)와 함께 四大靈塔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들은 모두 마가다(摩揭陀)왕국의 경계에 있다고 한다. 앞의 마하보리(摩訶菩提)와는 거리가 멀지 않다.

8) 梁翰乘 앞의책, p.13.

먼 길을 와서 보고 싶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또 걱정이다. 나그네의 외로운 길이며, 또 未知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惡業이 밀려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菩提의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악업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暗示한다.

여덟 탑은 바로 釋迦一代의 靈蹟 여덟 곳에 建立된 塔을 말하는데 人中에 四塔, 帝釋에 四塔이 있다고 한다. 釋迦의 靈蹟을 더듬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정적자아는 단순히 釋迦의 靈蹟을 巡訪하는 것이 아니라 釋迦처럼 得道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어렵다는 것이 아닐까? 對句를 보면 탑 자체가 여러 차례 燒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外形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內面の 精神世界까지 보고자 하는 것이 서정적자아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聯을 보면,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시킬거냐고 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의 세계이다. 인간의 욕리에 잠재해 있는 이상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對句에 가면 이 관념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로 전환된다. 不可視的世界에서 可視的世界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재에는 可視的世界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가까운 미래—구체적으로는 그날 아침에 可視的인 現象界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정적자아는 이러한 可視的 現象의 세계를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 가시적 현상계는 바로 道의 實現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求道者의 內面世界를 읊조리고 있다. 바로 旅行을 하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자 하는 對象에 대해서 서정적자아는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다.

故里燈無主	교향의 등불은 주인을 잃고
他方寶樹摧	큰 인물이 이국땅에서 꺾이었구나
神靈去何處	신령은 어디로 가시었는가?
玉兒已成灰	옥같은 얼굴 이미 재가 되었는데
憶想哀情切	생각하니 애절할 그지 없어
悲君願不隨	슬프다! 임의 소원 이루지 못한 것이
孰知鄉國路	누라서 교향길 알리오

空見白雲歸 흰 구름만 헛되어 돌아가는 것을.

앞의 제2장에서 그 창작동기는 고찰을 하였다. 바로 나갈라타야(那揭羅駄椰)라는 절에서 修道를 한 中國僧侶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서정적자의 처지와 비교해서 이 시를 읊었다는 것이다. 고향의 등불에서 고향은 바로 中國僧侶의 고향을 가리킨다. 三藏, 즉 올바른 길인 經과 增山戒學과 增上心學인 律과 戒定慧인 論에 능통한 中國의 高僧이 바로 등불의 주인이다. 그런데 어떠한가? 寶樹(큰인물)가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꺾였다(죽었다). 得道를 해서 故郷으로 가려던 차에 그만 이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寶樹는 神靈스러웠다. 왜냐하면 得道를 했으니까, 옥같이 온근하면서도 어린이같은 티없는 모습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버렸다. 여기서 서정적자는 人生的 無常함을 느낀다. 사실 이 시는 頷聯에서 끝나도 충분히 뜻을 전달한 셈이다. 頷聯 이하의 의미는 首聯과 頷聯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 저절로 알 수 있다. 得道를 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때에 타향에서 운명을 했으니 애절하기 그지 없다. 이루지 못한 인간의 꿈이기에 더욱 슬픈 것이다. 고향으로 가야 할 사람은 사라지고, 문득 하늘을 보니 흰 구름만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인생은 한 조각의 구름과 같다"는 것을 서정적자는 실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정적자아-서정적자아와 작자를 同一視할 때는 바로 慧超 自身-가 또 나그네의 신세이며, 中國의 僧侶와 같이 求道를 위해서 고향을 떠났기에 그 감회는 더욱 깊었을 것이다. 또 佛道를 닦는 僧侶로서 聖地 鹿野苑을 예방했을⁹⁾ 때의 감회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두 수의 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첫째 詩語面에 있어서는 佛家の 用語를 쓴 곳이 많다. 그것은 작자 자신이 僧侶였고, 또 현재 그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聖地巡禮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語氣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것은 작자 자신의 內面的, 外在的 領域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작자 자신의 氣가 그다지 강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시대적, 사회적 문풍에서도 찾을 수

9)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生也一片浮雲起 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是'라는 佛家詩가 있다.

10) 張德順, 앞의책, 1985. 3, p.17.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新羅中期 詩人들의 作品을 모두 고찰한 뒤에야 어떤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한 사람의 作品을 고찰해서 성급하게 結論을 내릴 수 없다.

내용면에서 보면, 비록 僧侶이지만 人間的인 面을 강하게 表出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求道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情感이 豊富하게 湧해 되어 있다. 換言하면 抒情性이 강하다고 하겠다. 즉 慧超의 詩는 求道와 人情 가운데 人情이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臧臧 含始始始始

V. 新羅 中・後期の 聯繫

앞 章에서는 慧超가 僧侶이지만, 그의 作品은 抒情性이 강하다는 것을 고찰했다. 修道僧이면서 求道와 人情이라는 二元的 世界에서 보다 人間的인 面을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慧超, 그는 때로는 自然을 관찰하고, 그 餘興을 자신의 처지에 비추기도 했다. 그리고 또 自身이 아닌 다른 사람의 立場을 보고, 그 사실을 미루어 자신의 立場을 피력하기도 했다. 作品 A)를 제외하면 모두 人情이 강하게 表出되어 있다. 여기서 慧超에 대한 선입관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抒情詩를 짓게될 緣由는 어디에 있는가? 또 後代 詩人들과는 어떠한 脈絡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해야 할 必要가 있다. 여기서 後代 詩人들이라고 하면 勿論 新羅 下代の 詩人들 一唐에 寶貢으로 留學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킨다. 新羅 下代の 渡唐留學生들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作品이 전해오는 시인은 崔致遠과 朴仁範, 崔匡裕, 崔祐祐이다. 崔致遠의 시는 지금까지 130수 가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분의 시는 <東文選>에 10首 썩만이 전해오고 있을 뿐이다.⁴⁾ 다시 慧超의 시 한 수를 들어서 다음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月夜瞻鄉路 달밤에 고향길 바라다보니
浮雲颯颯歸 뜬 구름만이 뭉게뭉게 돌아가누나
臧書參去便 그 구름에 소식 전하려 하나
風急不聽迴 급한 바람결은 아랑곳 없네
我國天岸北 우리나라는 저 북녘 하늘 끝

他邦地角西 타국땅 서녘 모퉁이에 와 있네
日南無有雁 덥고더운 남쪽나라엔 기러기도 없는데
誰爲向林飛 뭐라서 날 위해 鷄林으로 날아갈꼬

먼저 沈浩澤教授가 이 시를 논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¹¹⁾ “그의 思鄉 또한 宗教的 本源에의 思鄉이 아닌 異國人으로서의 故國에 대한 鄉愁요, 나 그네로서의 故鄉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준다.”라고 하여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筆者도 共感한다. 그러면 首聯부터 分析을 해 가면서 筆者의 見解를 보기로 한다.

首聯을 보면, 지금 서정적자아가 처해있는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그것도 달 밝은 밤인 것이다. 달밤에 고향을 생각한다. 달은 따뜻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싸늘한 느낌을 준다. 밤(夜) 자체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암시한다. 싸늘히 식어있는 밤에 나그네가 그리는 고향은 간절하기만 하다. 그 시각에 하늘을 보니 구름은 뭉게뭉게 떠간다. 뜬 구름 자체가 무게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飄飄이라는 의태어가 한결 가벼움을 더해준다. 서정적자아 자신은 그 자리에 서 있으나, 구름은 가벼이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와 無心하게 떠 가는 구름이 서로 대조를 이루어 서정적자아의 정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구름처럼 가지 못하기 때문에 便紙라도 구름편에 보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급한 바람이 구름을 빨리 몰고 가버리니까, 여기에 서정적자아는 구름을 有情化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녘 하늘 끝에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방향감이 문제가 된다. 물론 서정적자아 一慧超一가 위치한 곳에서 북쪽이 될 수 있다. 북쪽은 겨울을 가리킨다. 실제 고향이 있는 곳과 서정적자아 자신이 가리키는 북쪽 사이에는 重義가 있다. 北이 가리키는 함축된 의미를 한 번 짚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어떠한가? 타국의 땅 서쪽 모퉁이에 와 있다고 했다. 이 詩句에서의 西方도 또한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쪽은 가을

11) 沈浩澤 “三國時代와 新羅中代의 漢詩에 對하여”(漢文學論集, 第二輯)(檀國大學校 漢文學會), 1984. 11. p.16.

을 가리키며 하루로 말할 것 같으면 午後를 가리킨다. 北西라는 방향과 首聯의 月夜, 浮雲은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西北이라는 말 자체에 서도 밤과 덧없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聯의 出句의 翻譯이 문제가 된다. 張德順教授와 沈浩澤教授는 각각 다음과 같이 翻譯하고 있다. 즉, “덥고 더운 이 땅엔 기러기도 없으니”, “해 뜨거운 남쪽에는 기러기도 없으니”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日南이다. 물론 해가 남쪽에 있을 때 가장 덥다. 남쪽은 바로 正午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보면 日南¹²⁾는 ‘덥고 덥다.’ 또는 ‘해 뜨거운 남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그러나 앞의 北·西라는 方向을 나타내는 詩語나 月夜라는 時刻를 가리키는 말과 調和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덥다는 意味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日南至’의 의미, 즉 동짓달의 뜻으로 번역하면 어떨까? 달(月)로 말하면 동짓달이 되었지만, 더운 곳이기 때문에 기러기가 없다는 뜻으로 하면 文脈이 더 잘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러기는 겨울 철새이며, 또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韓羊島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현재 서정적자아가 있는 곳은 韓羊島의 남쪽 나라 서쪽 끝에 있으니 기러기가 올 리가 없다. 그러니 기러기편에 자신의 소식을 띄울 수 없지 않는가? 구름에 자신의 소식을 보낼려고 해도 바람이 너무 빨리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또 기러기편으로 자신의 소식을 고향에 전하려고 해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不可能하다. 고향 같으면 동짓달에 기러기가 오지만 현재 서정적자아가 있는 곳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시는 마치 李白의 ‘舉頭望山月 低頭思故鄉’이라는 시구와 비슷하게 鄉愁에 젖어 있다. 이 시는 僧侶의 作品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情感이 가득 차 있다.

필자는 ‘羅末의 詩’를 論하면서,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¹³⁾ 즉, ① 羅末詩人들의 詩語는 섬세하다. ② 이미지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③ 歸巢意志를 내포하고 있다. ④ 情感的으로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12) 日南을 日南中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太陽이 子午線에 이를 때를 가리킨다.

13) 拙著, “羅末의 詩人들 — 朴仁範, 崔匡裕, 崔承祐를 中心으로” (嶺南語文學 第十五輯, 1988, 嶺南語學會), pp.337~363 參照.

⑤ 超人文精神을 시 속에 담고 있다. ⑥氣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⑦〈文選〉, 〈四書三經〉, 〈史記〉, 〈三國志〉, 〈春秋〉, 〈般若心經〉, 〈華嚴經〉과 같은 佛家書 〈老子〉, 〈莊子〉와 같은 道家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 혜초의 시는 어떠한가? 앞에서 고찰했듯이 혜초의 시도 위의 羅末詩人들의 특성과 비슷하다. 다만 학문의 깊이는 뒤진다고 할 수 있다. 혜초의 시 속에는 다른 곳에서 用事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아 물론 慧超의 詩는 賓貢留學生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新羅下代와 그 이전의 詩風을 잇는 橋樑의 役割을 하고 있다. 혜초가 최초로 근체시를 지었다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그의 시 속에 흐르는 시정신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혜초의 시는 수사적인 면에서 보면 신라 末의 시인들의 시에는 뒤진다. 아직 완전히 近體詩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羅末詩人들과 같이 情感을 주로 하고 있다.

IV. 마무리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慧超는 新羅中期(AD. 704~787)의 시인이다. 現傳하는 혜초의 시는 다섯 수이며, 이 다섯 수의 시편들은 「往五天竺國傳」이라는 기행문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들 시의 창작심리는 밝은 데서 緣由한 것이 아니다. 이들 시들은 得道の 喜悅을 지나서, 旅愁에 젖은 상태에서 事物이나 事件을 접할 때 人間の 五官을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認識作用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는 作者가 修道僧이며, 旅客이라는 점에서, 그 받아 들여지는 정도가 깊어지고 있다. 外部와의 和合이 아니라 隔離되고 있기 때문에, 혜초의 다섯 수의 시들은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많다.

혜초의 시는 古詩에서 近體詩로 넘어가는 過渡期的인 詩體를 지니고 있다. 이는 慧超가 粘이나 韻은 비교적 正格으로 하면서도 對偶를 잘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라 사회·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古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社會的인 制約이 있었기 때문이다.

혜초의 시는 ① 詩語面에서는 佛家の 用語를 쓴 곳이 많다. 그 이유는 作者自身이 僧侶였고, 또 현재 그가 수행하고 있는 것은 聖地巡禮기 때문이

다. ② 語氣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그것은 작가 자신의 內的·外的 要因이 모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작가자신의 氣가 그다지 강하지 않는 데서 연유한다고 하겠고, 또 時代, 社會 全般의 文風에서도 起因이 된 것이다. ③ 내용면에서 보면 僧侶의 作品이지만 人間的인 面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求道와 人情 가운데 人情이 優位에 있다.

혜초의 詩는 羅末詩人들의 詩의 특성과 비슷한 점이 많다. 즉, ① 詩語가 섬세하다. ② Image面에서 效果가 있다. ③ 歸巢意志를 내포하고 있다. ④ 情感的으로 自然을 묘사하고 있다. ⑤ 超人文精神을 詩中에 담고 있다. ⑥ 氣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學問의 領域面에서는 羅末詩人들에 뒤진다고 할 수 있다. 혜초의 詩 속에는 用事한 곳이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자신의 심정을 比喻로 읊조리고 있다.

아 물론 혜초의 시는 羅末과 그 이전의 詩를 잇는 橋樑의 役割을 하고 있다. 혜초가 近體詩를 처음 지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그의 詩 속에 흐르는 詩精神 또한 그러하다.

미진하나마 본고는 여기서 끝맺기로 한다. 혜초 이외의 다른 시인들의 시를 모두 고찰하고나서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어낼 것을 약속한다.